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위령사업·연구원 양성 지원

특위 공동발의 조례안 의결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일조

순천시의회는 20일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 따

르면 이 조례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비롯해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 문화 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여

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 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사업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미희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는 최미희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이복남, 신정란, 이항기, 장경순, 최현아, 양동진, 장경원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4개월간 '예술로 생태탐험' 운영 순천시, 초등학교 대상

순천시는 2023년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4개월간 '예술로 생태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술로 생태탐험' 프로그램은 10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대상은 순천 지역 거주 초등학교 2~6학년으로 1기 수당 12명, 총 6기 72명의 지역 청소년을 모집하여 기수별 6회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음악속의 스토리, 악기 및 음악의 형식 살펴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모집은 각 기수별 마감까지 진행되며,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회관(061-749-8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출발 구례군, 에코원정대 양성 등

구례군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에코원정대'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이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생태학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에코원정대, 에코 리더 활동가 양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례 에코원정대' 프로그램은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참가자 40여 명이 장포물 체험, 한지 부채 만들기 등 전문통화를 체험했다.

군은 7월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제로 도전 골든벨', 섬진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섬진강 놀이터, 압화를 바탕으로 한 생태 미술 활동, 구례수목원의 수국정원 체험 등 다양한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문 생태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에코 리더 양성과정'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전남 유치를 위한 군민 캠페인도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유도하고, 기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회의 보성군, 치안 서비스 제공



보성군은 20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군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과 보성경찰서, 보성교육지원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공모사업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했다.

내용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 사업 △CCTV 설치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안심 화장실 조성사업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통합 지주 스마트폴(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 경찰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생활 안전, 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치안 사무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 경찰서, 유관 기관 협의체다.

김은지 기자



구례군이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에코원정대'를 시작했다. 구례군 제공

광양시, 마을공방 '동행 GY'로 지역 공동체 강화

마을기업 창업플랫폼 마련

광양시가 경영이 다소 열악한 지역 내 마을기업과 마을공방의 창업 플랫폼이 마련돼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마을기업인, 공방 운영 관계자 등과 함께 '동행GY' 마을공방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과 희망메시지 남기기, 공방 라운딩, 다과 및 음료 시식회 등으로 진행됐다.

중마정통길 88번지에 소재한 동행GY 마을공방은 시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3억원을 추가해 총 4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됐다.

시는 지난해 연면적 144.64㎡의 건물 내부를 공방작업실, 회의실, 공동카페 등 주민 소통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올해 비로소 공방 운영자로 '광양시 지역공동체협동조합' (대표 김현수)을 선정했다.

공방에는 지역 내 마을기업과 마을공방의 물품 판매, 카페 운영, 도자기 체험

과 기술 습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한편,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광양시에는 마을기업 16개사를 비롯해 사회적기업 26개사, 협동조합 61개사, 자활기업 5개사 등 108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국가 등록문화재 '구 보성여관' 활용사업 추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일한

보성군은 오는 11월까지 벌교읍 '구 보성여관'에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132호 구 보성여관에서 지역 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보성여관을 알리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추진됐으며 문화재청과 전남도, 보성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 공연(실내악/판소리/연극) △문화체험교실(연자방공예/녹차화장품) △주말힐링 문화공간(전통 악기 공연) △보성여관 속속들이 등이 있다.

먼저 감성 공연은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의 곡을 골자로 한 실내악 공연, 서편제 보성 소리를 계승하는 지역 명창 판소리 공연, 근대 연극 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 체험 교실은 보성 녹차를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연자방을 활용한 전통 공예 활동이 진행되며, 주말 힐링 문화공간 프로그램은 주말 상시 테마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보성여관 속속들이는 상설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보성여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 보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이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여관(061-858-7528)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구 보성여관은 1935년 건립된 일분식 2층 건물로 일식 목조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로 2004년 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

현재는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설 속 남도여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숙박 동도 운영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장흥군,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

장흥군은 벼 품목에 대한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상품이다.

장흥군은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정부에서 보조하므로, 모든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재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농업인 부담 10%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안전보험은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여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빈집포 활용 청년사업가 추가 모집 광양시, 7월7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교육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업 교육은 7월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예비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고객 응대 요령과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등 총 18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 중 PT발표 및 질의응답 등 평가를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 등 창업지원금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다. 광양읍(전남도립미술관-광양역사문화관, 5일시장 일원) 중마동(사량병원 ~ 광양청년꿈터 일원)을 창업 예정지로 두는 경우 우대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최대 10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7월7일까지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을 참고. 광양=안영준 기자